

3월15일(월)/사도행전13:42~43

제목: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나갈 때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다시 설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42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까지 따라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다(43절). 이 말은 다시는 어리석은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교리를 붙들라는 의미이다.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고 다시는 유대교 공로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주의의 구원관이 몸에 밴 그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의 구원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이났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믿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몰라도 아직 한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를 믿으면 값없이, 공로없이, 은혜로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것이다.

3월16일(화)/사도행전13:44~52

제목: 복음은 두 가지 결과는 낳는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였다(44절). 그러나 그곳에 온 철저한 율법주의 성향을 지닌 유대인들은 반대로 많은 무리들이 집결한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방을 일삼았다(45절). 바울과 바나바는 시민들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을 향해 전파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46~47절).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었다(48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위층 부인들과 고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향했다(50~51절). 기독교 메시지는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을 낳기도 하고, 아니면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을 낳기도 한다. 그것은 질투 아니면 기쁨을 낳는다. 그것은 믿음 아니면 비방을 낳는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진실한 곳에서부터 들려 와야 한다.

3월17일(수)/사도행전14:1~7

제목: 전도자가 난관에 부딪힐 때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였다(1~2절). 바울은 여기서도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3절). 은혜의 말씀은 바울의 전도의 주제였다. 바울은 도시를 옮겨갈 때 마다 새 메시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 여기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복음을 받아드리는 사람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다(4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 (3절)는 것이다. 오래 머문 이유는 박해 때문이었다(2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오래 머물렀다. 이유는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난관이 그들을 좌절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기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다. 박해는 그들을 오히려 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채질 하였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전도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의 포기하느냐 계속 진행하느냐에 달렸다.

3월18일(목)/사도행전14:8~18

제목: 사람을 추앙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8~10절).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신이라 하여 숭배하려고 하였다(11~13절). 이에 두 사도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자신들은 한 인간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다(14~15절).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하였지만 이번에는 가장 큰 위험을 당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려고 찾아왔을 때이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을 숭배하려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권세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뿔박과 돌에 맞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위험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 화판을 가져오고 그를 신성시 할 때 그들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된다. 교회서 일 할 때 내가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는 유혹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한다.

3월19일(금)/사도행전 14:19~28 (1)

제목: 시련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왔다. 유대인들은 광기와 살기가 등등하여 돌로 바울을 쳤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19절). 율법 상 시체를 성 내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중상을 입고 성 밖으로 버려졌으나 일어서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20절). 안디옥에서 바울은 도망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은 피하였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중상을 입고 버려졌다. 바울이 왜 어떤 곳에서는 안전하게 지내고 어떤 곳에서는 위험에 처하는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는 시련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방법이다. 우리도 삶속에서 재앙을 당하고 상처받고 깨어질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신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